

케이스탯 2020년 10월 정기지표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- '올바른 방향' 51% vs '잘못된 방향' 49%로 격차 좁혀져
- 2030 세대의 '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' 부정평가 상승

경제 방향성 평가

- 대한민국 경제, '잘못된 방향' 우세 지속돼
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

- 대한민국 미래, '지금보다 나빠질 것' 근소 우세

정부 신뢰도

-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, 혼전 양상 지속

정부정책 만족도

- 정부정책 '만족 않는다' 여론, 지속적 우세

개인 행복도

- 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53%로 여전히 우위
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-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지속 우세

• • • • 일러두기

- ❖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.
 - ❖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- ❖ 본 리포트에서 n 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 - ❖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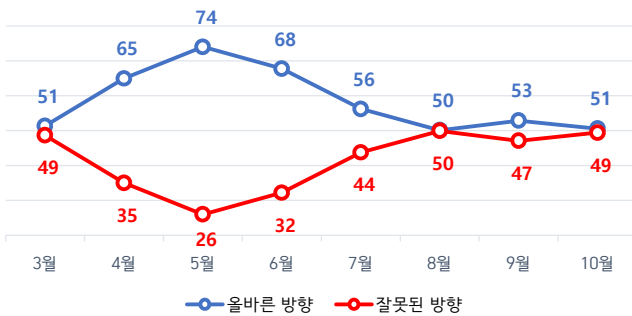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※ '올바른 방향' 51% vs '잘못된 방향' 49%로 격차 좁혀져

- ▶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'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'는 의견과 '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'는 의견이 각각 51%, 49%로 조사됨
- ▶ 9월에 비해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의견이 소폭 하락하면서 격차가 좁혀짐
- ▶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3050 세대 △진보층 △서울, 충청, 호남 △블루칼라, 화이트칼라, 주부 계층 등임
- ▶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, 중도층 △인천.경기, TK, PK △자영업자, 학생, 은퇴.무직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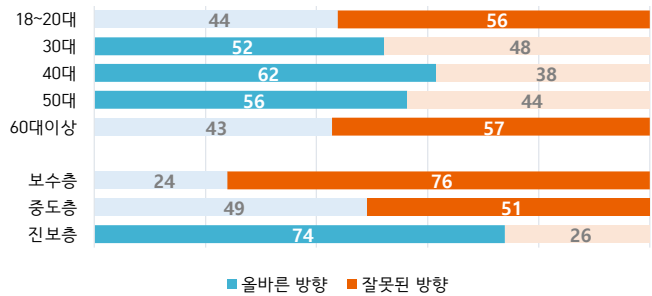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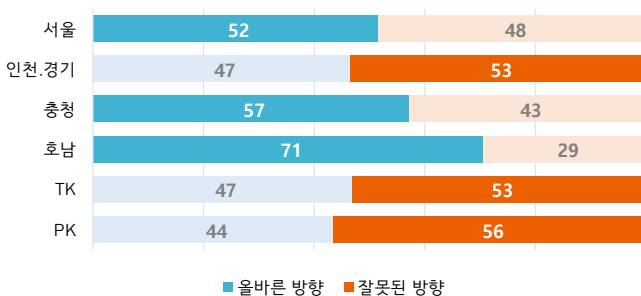
10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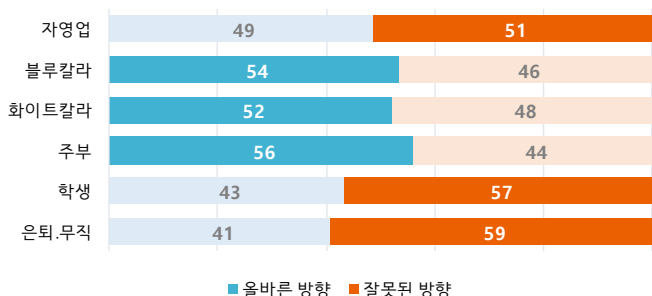
10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10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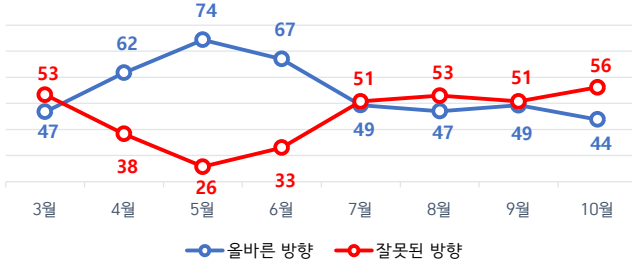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️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'코로나19'로, 코로나19 확산 또는 진정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향이 뚜렷함
 - :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대한민국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, 반대로 진정될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
 - : 즉, 코로나19 확산시 정부 대응과 국민적 참여가 부각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, 코로나19 진정시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이 부각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음
- ☑️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 10월의 '대한민국 방향성'은 당초 전망대로 긍정평가가 하락함
- ☑️ 11월 '대한민국 방향성' 역시 코로나19 진정국면이 유지되면서 긍정평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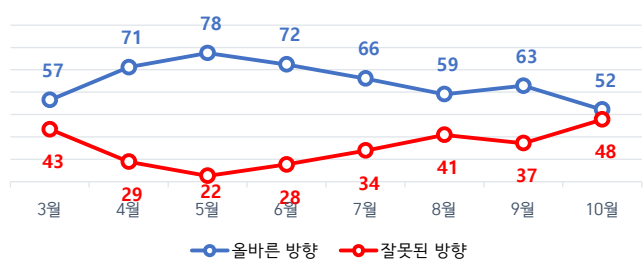
※ 2030 세대의 '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' 부정평가 상승

- ▶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, 4060 세대의 평가는 9월과 거의 비슷한 데 비해 2030 세대는 부정평가가 상승함
- ▶ 특히 30대의 경우 3월~9월까지 일관되게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응답이 우세했으나, 10월에는 '잘못된 방향'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음
 - 9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6%p였으나 10월에는 4%p로 줄어들음
- ▶ 18~20대는 7월부터 부정평가가 소폭 우세한 흐름을 보이다가 10월 들어 부정평가 수치가 상승, 60대이상 연령층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
 - 최근 각종 조사에서 18~20대와 60대이상 연령층의 응답이 비슷한 양상인데, 이번 조사에서도 동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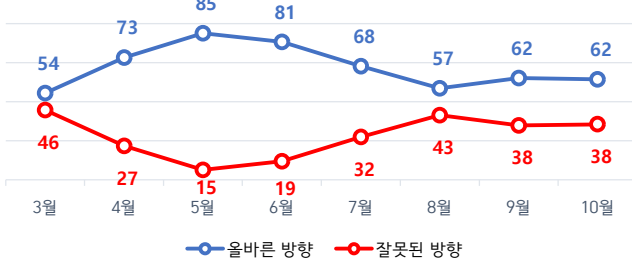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18~20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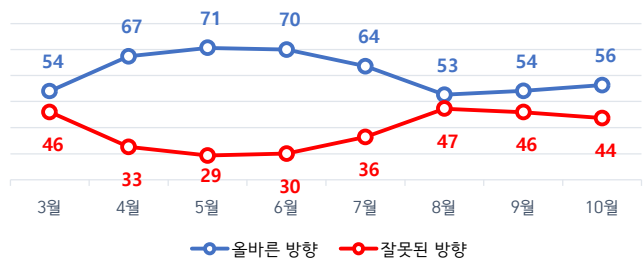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30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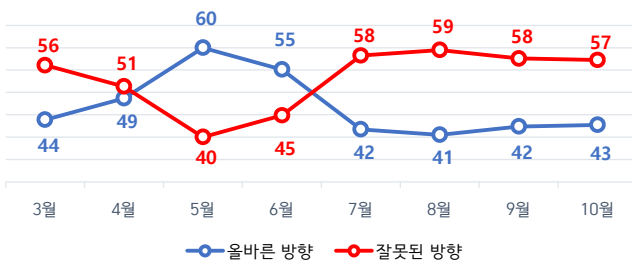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40대

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50대

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60대이상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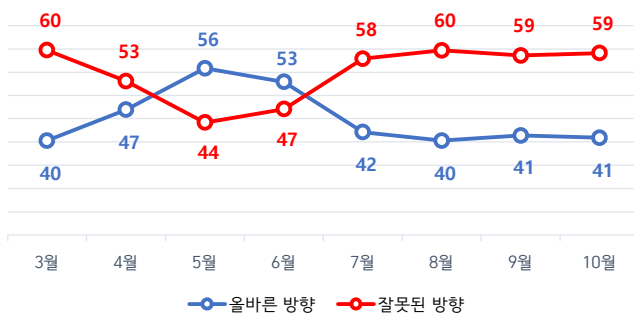
- ☑ 10월에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일 경우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부정평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고, 실제로 부정평가가 상승했지만, 그 폭이 크지 않았음
 - :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긍정/부정평가 간 격차는 9월 6%p에서 10월 1%p로 좁혀들었지만, 여전히 근소하게 긍정평가가 우세함
- ☑ 코로나19가 큰 고비를 넘겼지만,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정치·사회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
 - : 부동산 가격·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등이 장기화되고, 추가 이슈가 없어 관심도가 하락한 것도 이유임

경제 방향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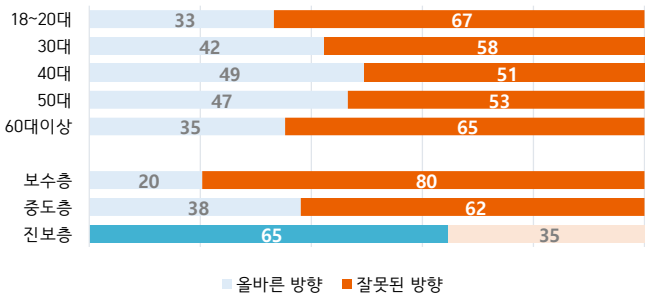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경제, '잘못된 방향' 우세 지속돼

- ▶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은 7월부터 '잘못된 방향'이라는 평가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, 10월에도 '잘못된 방향' 우세 양상이 지속됨
- 10월 경제 방향성에 대해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의견은 41%이고,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은 59%로 조사됨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응답은 △진보층 △호남지역에 불과함
- ▶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'올바른 방향'이라고 생각하는 3050 세대 역시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응답이 우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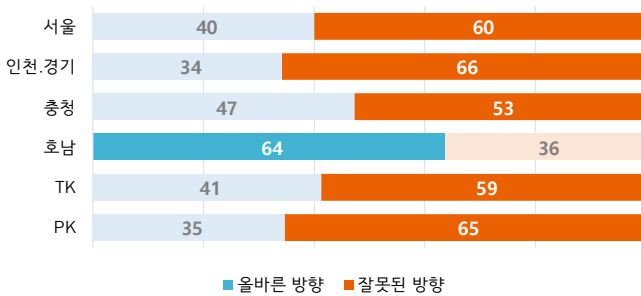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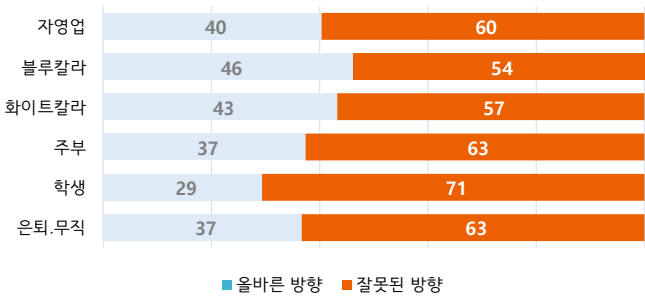
10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10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10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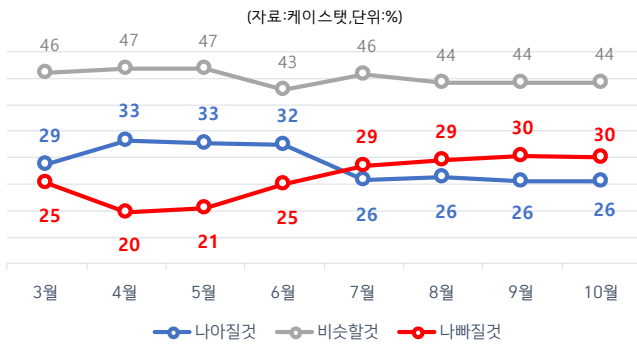
- ☑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 '올바른 방향'인가, '잘못된 방향'인가를 평가하는 핵심 요인은 현재의 경제난 정도가 아니라 '미래 극복가능성'으로 분석됨
 - :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음
 - : 그런데도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
- * 코로나19 지속시 경제 등 사회영역별 전망에 대한 국민의견은 케이스탯 리포트 14호 [코로나 시대 '위협'과 '위안'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] 참고
- ☑ 다만, 국민에게 경제적 비전과 희망을 안겨줘야 하는 정부가 지금처럼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 방향성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음
 - : 지난 9월 정기지표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'한국판 뉴딜 정책'에 대한 국민체감도는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고, 10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
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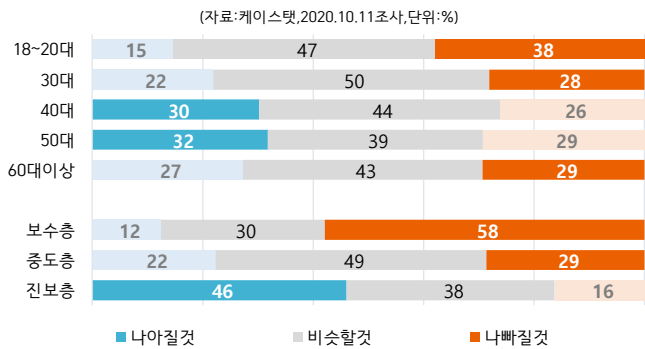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미래, '지금보다 나빠질 것' 근소 우세

- ▶ 5년 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은 '지금과 비슷할 것'이라는 응답이 44%로 높은 가운데 '지금보다 나빠질 것'이라는 응답이 30%로 '지금보다 좋아질 것'이라는 응답 26%보다 소폭 우세하게 조사됨
- ▶ '지금보다 나빠질 것'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2030 세대, 60대이상 △보수층, 중도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TK, PK △블루칼라, 화이트칼라, 학생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▶ '지금보다 좋아질 것'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4050 세대 △진보층 △충청권, 호남권 △자영업자 등임
- 주부 계층은 '좋아질 것' 26%, '나빠질 것' 27%로 거의 비슷하게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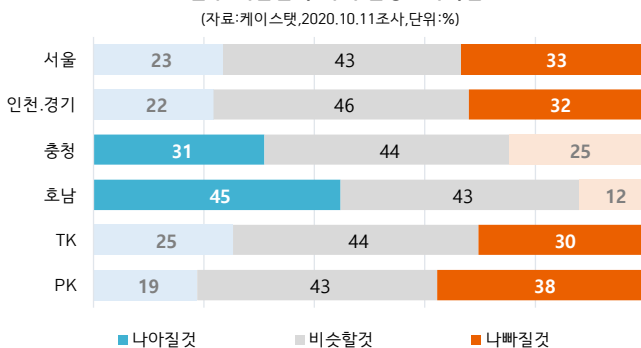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: 국민전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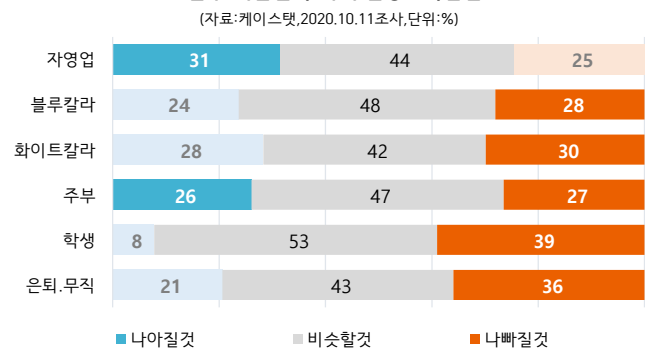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: 연령별,이념별


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: 지역별


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: 직업별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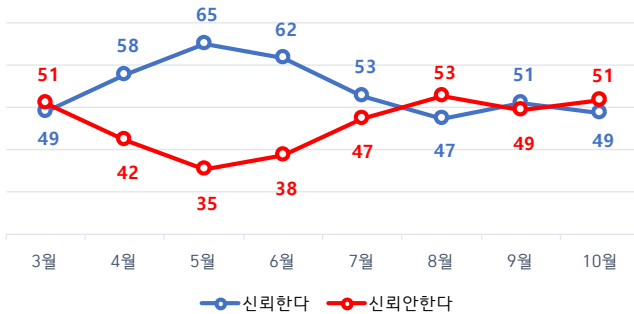
- ☑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은 국가 미래에 대한 국민적 희망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인데, 7월부터 희망보다 비관이 우세하게 나타남
- 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됨 :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, 그 극복 경로와 목표에 대한 국민적 확신을 안겨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임
- ☑ 이번 10월 조사처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유지될 경우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, 내년 보궐선거는 물론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다분함

▣ 정부 신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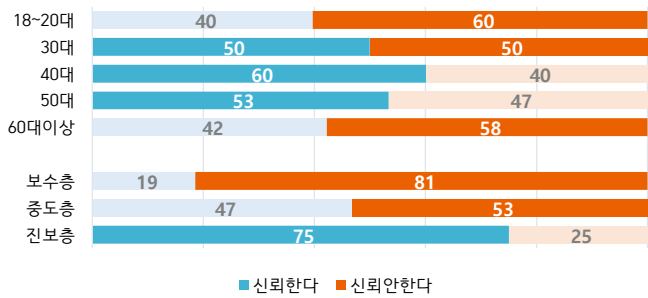
※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, 혼전 양상 지속

- ▶ 정부를 '신뢰한다'는 의견은 49%이고, '신뢰 안한다'는 의견은 51%로 조사됨
- 9월에는 '신뢰한다'는 의견이 51%이고, '신뢰 안한다'는 의견이 49%였으나 근소하게 역전됨
- ▶ 정부 신뢰도는 7월부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10월에도 이러한 양상이 재현됨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'신뢰한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4050 세대 △진보층 △충청권, 호남권 △블루칼라, 화이트칼라, 주부 계층 등임
- 30대와 서울은 '신뢰한다'와 '신뢰 안한다'는 응답이 공히 50%로 팽팽함
- ▶ '신뢰 안한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, 중도층 △인천.경기, TK, PK △자영업자, 학생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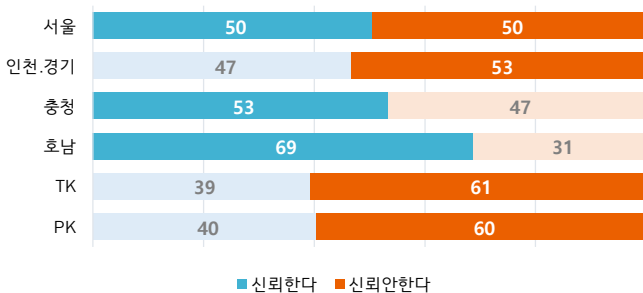
정부 신뢰도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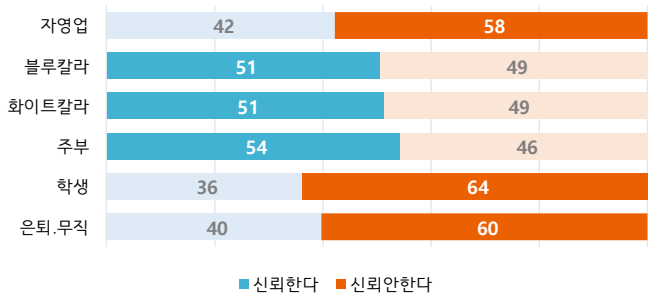
10월 정부 신뢰도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10월 정부 신뢰도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10월 정부 신뢰도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정부 신뢰도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연령별 응답으로, 3050 세대는 '신뢰'하지만 18~20대와 60대이상은 '신뢰 안한다'는 응답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타남
: 7월부터 10월까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
- ☑ 하지만 이번 10월 조사에서 30대의 경우 '신뢰' 50% vs '신뢰 안한다' 50%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임
: 주식·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30대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설지 향후 귀추가 주목됨
: 참고로 2017년~2020년 8월 말 현재 신규 신용대출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3%로 가장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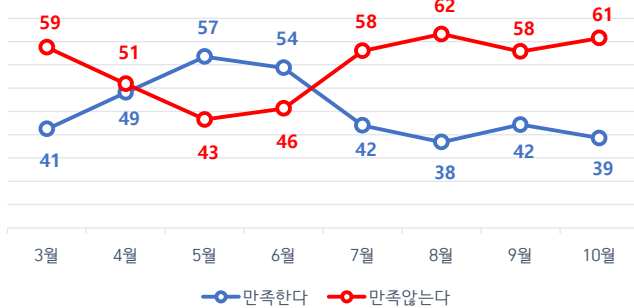
▣ 정부정책 만족도

※ 정부정책 '만족 않는다' 여론, 지속적 우세

- ▶ 정부정책에 대해 '만족 않는다'는 의견이 61%로, '만족한다' 의견 39%보다 높게 나타남
- ▶ '만족 않는다'는 의견은 7월부터 우세를 점한 이후 계속적으로 우세를 유지하고 있음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'만족한다'는 응답은 진보층과 호남권에 그치고 있음
 - 40대는 '만족한다' 50%, '만족 않는다' 50%로 팽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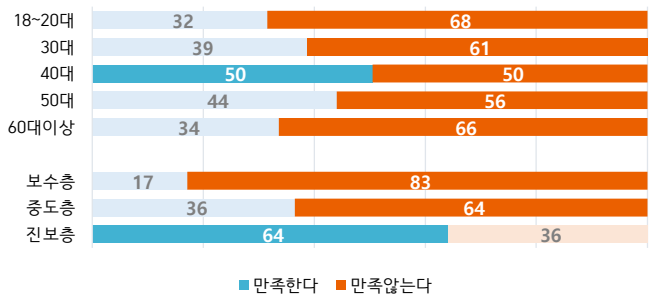
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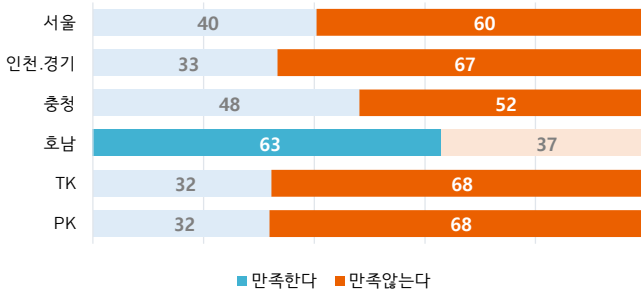
10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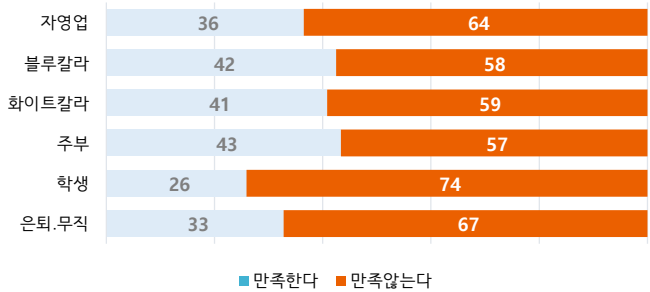
10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10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진보층과 호남지역만이 만족하고 있는 실정임
 - : 실제로 정부가 진보층과 호남지역만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지만, 정책을 수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진보층과 호남을 위한 정부가 되는 것임
 - : 정부를 신뢰한다는 50대, 블루칼라, 화이트칼라, 주부 계층도 정책 만족도에서는 낮음
- ☑ 지금과 같이 낮은 정책 만족도가 유지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·냉소적 여론이 확대재생산 되고, 결국 정부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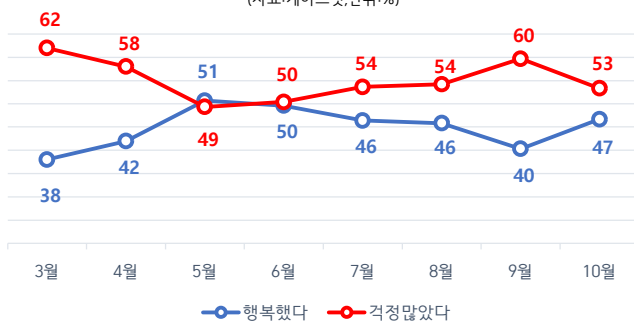
▣ 개인 행복도

※ 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53%로 여전히 우위

- ▶ 우리 국민 중 어제 하루 '행복했다'는 응답은 47%이고,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은 53%로 조사됨
- ▶ 9월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지만, 여전히 '걱정 많았다'는 국민이 높게 나타남
- ▶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2030 세대, 5060 세대 △보수층, 중도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TK, PK △자영업자, 블루칼라, 주부, 학생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▶ 이에 비해 '행복했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충청권, 호남권 △화이트칼라 계층 등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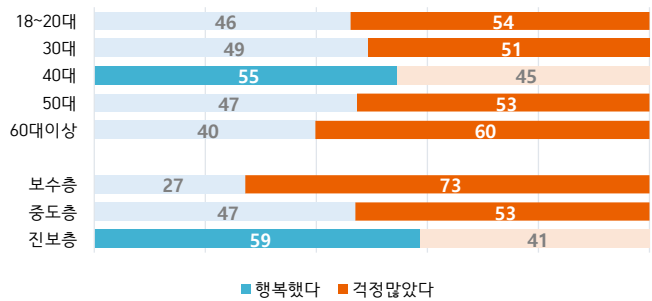
개인행복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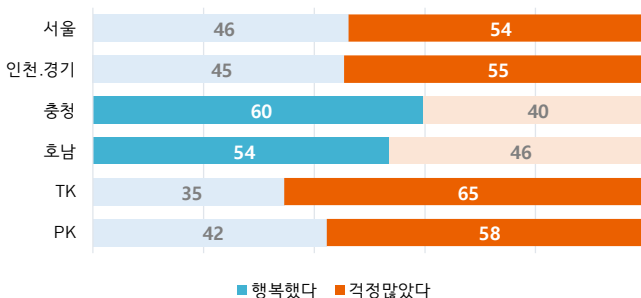
10월 개인행복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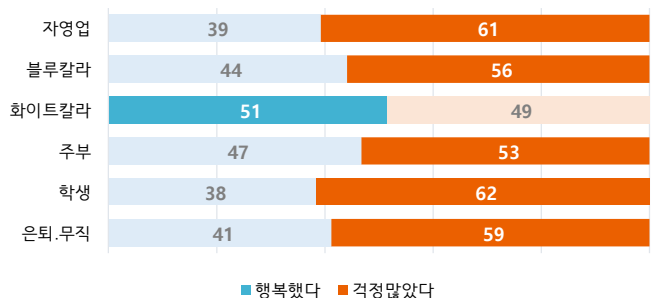
10월 개인행복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10월 개인행복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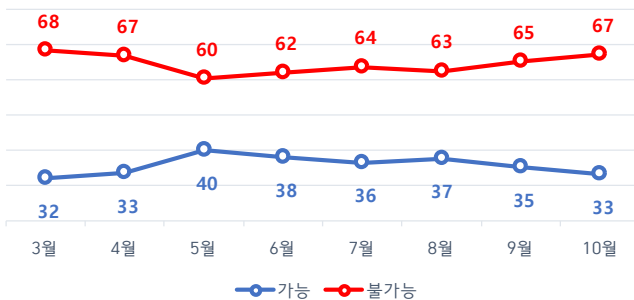
- ☑️ **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의 걱정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**
: 조사기간 중 5월, 6월에만 '행복했다'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을 뿐 다른 시기에는 '걱정 많았다'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
- ☑️ **코로나19가 단기간에 퇴치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도 국민적 행복도가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**
: 국민들 역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('돌아갈 것' 43% vs '못 돌아갈 것' 53%, 케이스탯 2020.10.11. 조사결과)
- ※ **코로나 복귀 전망, 코로나 이후 인간관계 변화상, 코로나 시대 위안을 주는 것 등 코로나 시대 국민 삶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4호 [코로나 시대 '위협'과 '위안'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] 참고**

㉨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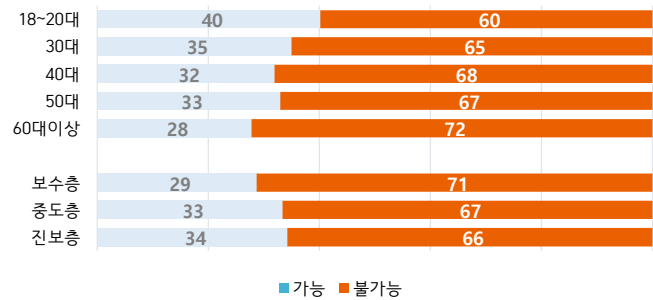
※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지속 우세

- ▶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가능한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임
- ▶ 조사를 시작한 3월부터 지금까지 '불가능하다'는 의견이 60%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, 여론이 고착화되어가는 양상임
 - 10월 조사에서 '가능하다'는 응답은 33%이고, '불가능하다'는 의견은 67%로 조사됨
- ▶ '가능하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18~20대 △호남 등임
- ▶ '불가능하다'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서울, PK △자영업자와 주부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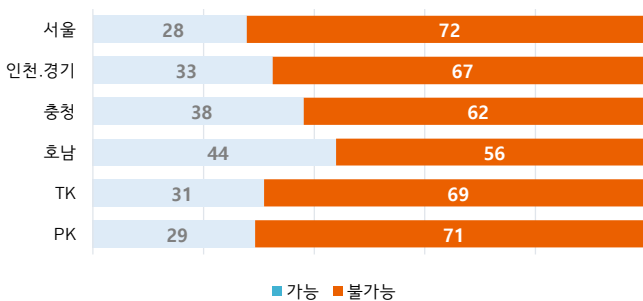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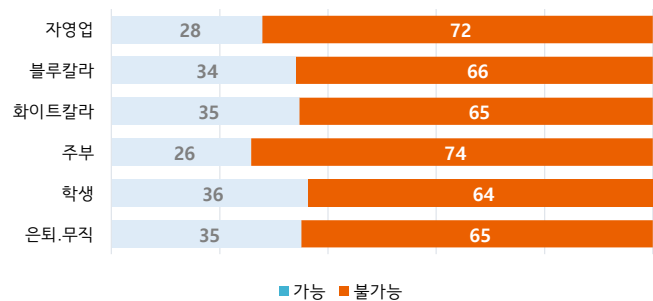
10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10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10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0.11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에 집중되고 있고, OECD는 국가별로 15~35%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삶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임
- ☑ 여기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일자리 소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
- ☑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특별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계층상승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, 이에 따른 사회 역동성 저하와 계층갈등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울한 지적임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

2020년 10월 9일(금) ~ 10월 11일(일)

조 사 방 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 사 기 관

케이스탯리서치

표 본 추 출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
표 본 틀

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
유 효 표 본

총 1,034명

표 본 오 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05\%p$

가중치 부여방식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
(2020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“Kstat Report”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

- Kstat Report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Kstat Report 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Kstat Report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Kstat Report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Kstat Report 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Kstat Report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

Kstat Report 15호(2020.10.29.)는

“공동체, 가족, 개인에 대한 국민 의식”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